

국내외 금융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대외안전판 확충에 만전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
-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 -
- 밸류업, 외환시장 구조개선, WGBI 편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 지속 확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6. 13.(목) 07:00(현지시간 6. 13.(목) 03:00),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중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간밤 미(美)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금년 금리 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하였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시점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 "If inflation were to fall more quickly than anticipated, we're prepared to respond."

금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어제 밤(한국시간) 발표된 미(美)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보다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다우) $\Delta 0.1\%$ (S&P) $+0.9\%$ (美 국채금리) [2yr] $\Delta 8\text{bp}$ [10yr] $\Delta 9\text{bp}$ (달러) $\Delta 0.5\%$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미(美)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09:00~15:30→⁺¹02:00)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24.6.27.)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법인식별기호(LED) 인정 범위 확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금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되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현익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hskim5495@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곽상현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김청윤 (luckykcy@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대용 (02-759-4181)
		담당자	조사역 김윤재 (yj.kim@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훈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신상주 (hipotes@fss.or.kr)